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10월 27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과	담 당 자	• 에너지신사업팀장 김일웅 ☎440-4301 • 담당자 윤영로 ☎440-4304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수소 선도도시 건설 본격화

- GS에너지와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업무협약 체결 -  
 - 청정수소 공급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하고 지역가치 높인다 -

인천시가 수소 선도도시 건설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지역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정 모빌리티 도시환경을 조성해 지역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27일 GS에너지(사장 허용수)와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청정수소\* 수입과 생산·활용 전반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청정모빌리티 도시환경조성, 클린열 지역난방 활용확대를 위한 것으로 GS에너지가 인천시에 1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H<sub>2</sub>O)을 분해해 만든 수소(H<sub>2</sub>)로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또한 블루수소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한 수소를 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정부의 청정수소 국내 공급 확대 계획 이후 추진되는 지방정부와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GS에너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공급체계와 청정수소 기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산·학·연과 수소연구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와 집단 에너지 사업의 친환경 열원 활용 확대, ESG 기반 친환경 연계사업 추진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GS에너지는 2025년까지 5천 개소, 2030년까지 1만 개소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약 70만 세대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에 클린열(청정수소 부생열)을 활용하며 온실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 라면서 “인천은 수소생산 기반을 갖춘 동시에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대표도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월 SK, 현대자동차와 협약체결 이후 수소산업 투자가 본격화됐고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 관련 사진은 15:00시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